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 정 아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홍 정 아

인 준 서

홍정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16명을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집한 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8명씩 무선배치 하였다. 실험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주2회, 6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자기표현 검사와 또래관계 검사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nn-Whitney U 검정과 Wilcoxon 대응 표본 부호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 Signed-rank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사후점수는 사전점수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하위요인은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저소득층 아동	9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9
2)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0
3)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행동적 특성	12
(1)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12
(2)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14
2. 동화	16
1) 동화의 정의 및 특성	16
2) 동화의 치료적 가치	19
3.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20
1) 집단 음악치료	20
2) 음악창작에서 동화의 활용	22
3)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23

III. 연구 방법	26
1. 연구 대상	26
2. 측정 도구	27
1) 자기표현 척도	27
2) 또래관계 척도	28
3. 연구 설계	29
4. 연구 절차	29
1)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및 설문조사	29
2) 사전검사	30
3) 사후검사	30
4) 프로그램 절차	30
5.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중재	31
1)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단계별 목표	31
2)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구성	32
6. 자료 분석	46
IV. 연구결과	47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48
3. 자기표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49
1) 자기표현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49
2) 자기표현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50
4. 또래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53
1) 또래관계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53
2) 또래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55

V. 결론	58
1. 결론 및 논의	58
2. 제언	6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26
<표 III-2> 자기표현 척도 문항 구성	27
<표 III-3> 또래관계 척도 문항 구성	28
<표 III-4> 연구 설계	29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31
<표 III-6>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32
<표 III-7> 각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적 논거	34
<표 III-8> 각 회기별 사용한 노래 및 치료적 논거	39
<표 III-9> 각 회기별 사용 동화 및 치료적 논거	41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48
<표 IV-3> 자기표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증	49
<표 IV-4> 자기표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49
<표 IV-5> 하위영역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증	51
<표 IV-6>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51
<표 IV-7> 또래관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증	54
<표 IV-8>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54
<표 IV-9> 하위영역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증	55
<표 IV-10> 또래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56

그림 목 차

<그림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평균점수 변화	50
<그림 IV-2> 내용적 요소	52
<그림 IV-3> 음성적 요소	52
<그림 IV-4> 체언적 요소	52
<그림 IV-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평균점수 변화	54
<그림 IV-6> 주도성	56
<그림 IV-7> 협동·공감	5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윤경, 2016). 보건복지부(2019)가 발표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85만 5천 가구였던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018년도에 116만 5천 가구로 10년 동안 36%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 의한 계급 구분 및 계급 간 대립 의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금수저’, ‘흙수저’ 등과 같은 ‘수저 계급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급 구분용 신조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여유진, 2018).

양극화로 인한 빈곤 문제는 가정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Carter(2002)는 빈곤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내 역기능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문제이다(김서안, 권영란, 2016).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47.7%가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일반 아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나와 박혜원(2014)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와의 상호교류가 부족한 아동은 불안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낮은 정서적 안정감은 공격성과 비행 등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 또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김선숙, 박호준, 2019). 이와 같이 빈곤으로 인한 취약한 환경은 아동기에 획득해야 할 정서·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성휘,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09).

아동기의 발달과업 중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보여주는 주요 변인이다. Grusec과 Lytton(1988)은 아동기 또래관계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기에 원만하고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맺은 아동은 자아 개념 형성, 정서적 지지와 안정, 의사소통 능력, 사회 기술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영화, 최준섭, 2018). 반면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은 청소년기에 비행, 알코올 중독, 학교 중도 탈락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Chen, Huang, Wang, & Chang, 2012).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아동의 올바른 자기표현 능력은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돕는다(오숙현, 2005; 진수영, 민천식, 2008). 김동일 외(2004)는 자기표현 능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또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면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심혜숙, 왕정희, 2001).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에게 예술치료는 효과적인 심리치료 수단이다(Higgins, 1993/2003).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예술치료 중재로 미술치료(김서안, 권영란, 2016), 통합 예술치료(임선희, 원상화, 2011), 문학치료(최은주, 김춘경, 2011)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가사 만들기 등의 음악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

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증재방법으로 입증되었다(김영은, 2016; 방은미, 2016; 이민화, 2014).

음악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도구이다(정현주, 김동민, 2005; Borczon, 1997/2004). 특히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허혜진, 2010),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Nathan & Mirviss, 1998/2011). 더 나아가 공동으로 창작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과정은 성취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배성진, 김경숙, 2020; 성한나, 김영신, 2017).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창작활동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에서 배성진과 김경숙(2020)은 음악극을 창작하는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사회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임윤영(2013)은 노래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백수정과 강경선(2016)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고학년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 발달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저학년 아동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음악창작 활동을 구상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매체인 동화(정여주, 2015)를 활용하여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환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동화는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McGee & Richgels, 1996/2000). 또한 동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 생각, 행동 및 갈등 해결방법 등은 아동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제공한다(문경여, 2005; 이영자, 유효순, 이정옥, 2001). 뿐만 아니라 동화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정숙, 전숙영, 2001).

이러한 동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동화를 활용한 심리치료 연구에서 임진솔과 공마리아(2019)는 집단 미술치료에 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김승주와 김승희(2020)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 미술활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김미지(2018)는 무용동작치료와 동화를 융합한 활동이 아동의 불안 감소와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세라(2010)는 놀이치료에 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기술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동화와 음악을 접목한 음악극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배성진, 김경숙, 2020; 성한나, 김영신, 2017; 허혜진, 2010). 그러나 기존 음악극에서 음악은 동화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의 음악적 표현이 동화 줄거리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음악적 결과물을 창작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동화 속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와 동화를 통해 연상된 생각과 감정을 음악적 표현으로 재창작하는 과정중심 치료이다. 이는 동화의 분위기,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 대사, 동화로부터 연상된 내담자의 내적 경험 등을 활용하여 노래 가사, 선율, 오스티나토, 랩 등 다양한 음악을 창작한 후 목소리와 신체 소리, 악기를 도구로 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동화 속에서

음악적 요소를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에서 동화 속 등장인물의 특징과 행동은 소리와 음색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Bartel & Cameron, 1998), 동화의 언어는 음악적 요소인 리듬, 고저, 악센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재구성하기에 적합하다(Calogero, 2002). 또한 아동이 동화를 통해 느낀 생각이나 감정은 가사로 재창작하여 표현하기에 유용하다(Campbell & Scott-Kassner, 1995). 이와 같이 동화는 음악 창작에 대한 막연함이나 부담감을 줄여주고 아동이 동화를 기반으로 음악을 구체화하여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매체인 동화와 음악을 융합한 활동은 자발적 자기표현을 유도하며(안명옥, 2018), 음악활동 안에서 수용되고 지지됨으로써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 음악 치료를 중재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을 이끌고,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도모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자기표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또래관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1)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로 정의한다.

2) 자기표현

자기표현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타인에게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성희, 1982). 자기표현은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체언적 요소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변창진, 김성희, 1980). 본 연구에서 자기표현은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또래관계

또래는 연령이 유사하고 서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아동들의 그룹을 의미하며(Hartup & Moore, 1990), 또래관계는 무조건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

적인 관계로, 연령, 신분, 흥미, 관심거리가 비슷해서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을 말한다(구광현, 이희경, 2002). 또래관계는 주도성, 협동·공감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양윤란, 오경자, 2005).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래가 공통의 관심사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정의한다.

4)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활동은 동화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이는 동화의 분위기, 등장인물의 감정, 동화로부터 연상된 생각이나 느낌 등을 활용하여 음악을 창작하고,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등을 하는 중재방법이다. 즉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는 동화를 기반으로 노래나 악기연주를 위한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중심 치료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 아동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빈곤은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이란 한 가구의 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수준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절대빈곤층이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은 동일 사회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말한다(서재욱, 2018). 이는 사회적인 관습과 생활수준에 의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종합하면,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생존의 개념으로 빈곤층을 정의하는 것이며,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김윤태, 서재욱, 2013).

최근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여유진, 2018).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분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9).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4%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중위 30% 소득은 1,424,752원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을 정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19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의 8세에서 13세 초등학교 아동으로 정의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빈곤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이경림, 2009).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공부방은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회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공부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습관 지도 등이 중심이 되었다(공창숙, 2008).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많은 아동이 방과 후 방임되는 문제가 야기되면서

공부방 운영자들은 시민의 역량만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그 후 2013년 아동복지법 재개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김정열, 2012; 이선애, 김현주, 2006).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와 건전한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기 직전에는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법제화 이후 2004년 12월 895개 센터가 법정시설로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2010년에는 3,690개소,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211개소가 법정시설로 등록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기준은 2016년 이전에는 돌봄 취약아동 60%, 일반아동 40%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이용 아동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돌봄 취약아동 80%, 일반아동 20%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다수가 돌봄 취약계층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부(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첫째,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며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보호기능을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사회 아동의 학습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기능은 아동의 학습 능력 제고와 학교 부적응 해소,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일상생활 유지 등의 교육적 기능을 지원한다. 셋째, 정서적인 지원을 한다. 정서적 지원 기능은 심리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고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도모한다. 넷째, 문화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한다. 이는 문화경험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예술체험

및 문화활동, 캠프활동,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한다. 연계의 기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그 가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후원 또는 자원봉사와 같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아동이 인권보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신변보호 및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행동적 특성

(1)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기표현(self-expression)은 여러 학자들로부터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Wolpe(1973)와 Adler(1977/2015)는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azarus(1966)는 자기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성희(1982)는 자기표현이란 타인의 감정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 욕구, 생각, 권리, 느낌 등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기표현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이다(우진경, 2016).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자기표현 행동으로는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있다. 소극적인 자기표현 행동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기도 한다. 이는 변명, 수줍음, 자기위축

과 같은 태도로 표현한다. 또한 원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행동을 보인다. 반면에 공격적 자기표현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과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강요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다(변창진, 김성희, 1980).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행동적 원인, 인지적 원인, 정서적 원인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Rakos & Schroeder, 1979). 행동적 원인은 자기표현 행동의 기술 부족이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침묵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원인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이다. 자기표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실패에 대한 잘못된 인과로 자기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편안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자기표현을 방해하고, 자기표현의 실패는 다시 부정적 감정의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루며 비합리적인 정서 상태를 만들게 된다(Rakos & Schroeder, 1979).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은 행동적, 인지적인 원인보다는 정서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관심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 아동은 긍정적인 정서 형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송효현, 정다우리, 2014). Rubin과 Judith(1987)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들을 언어화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저항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신지현,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불안정한 정서가 형성된 저소득층 아동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정정애, 민주희, 이성희, 최승숙, 김지현, 2019; 최혜선, 박성연, 2008).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절하게 자기표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온다. 장선미(2020)는 자기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자존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은아와 김정남(2011)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 많은 연구에서도 자기표현훈련을 통하여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공격성이 감소되었으며 협동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숙, 2006; 김시연, 장진경, 2001; 박시은, 박지연, 2015; 한숙종, 방명애, 권보미, 2018).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사고와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또래(peer)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Hartup와 Moore(1990)는 연령이 유사하고 서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아동들의 그룹을 또래라고 정의하였고, 구광현과 이희경(2002)은 무조건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연령, 신분, 흥미, 관심거리가 비슷해서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Shaffer(1979/2008)는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수준이 비슷하여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즉 또래관계란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래가 공통의 관심사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형성한다. 또래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또래집단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평등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Hartup & Moore, 1990). 아동은 수평적

인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장휘숙, 2001),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과 규칙들을 학습하게 된다(Grusec & Lytton, 1988). 또한 또래관계 안에서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정옥분, 2011).

아동기 또래관계는 아동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문자, 여종일, 2009). 정규석과 박선희(2010)의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수용 및 또래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이 긍정적이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박진희, 2013). 선영운(2015)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건강이 높아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이 그들의 요구에 반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거부반응을 보인다(Goldberg, 1991). 이러한 아동은 타인에게 적대감, 공격성을 나타낸다(Turner & Harris, 1984). 또한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우수경, 정영숙, 2003).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층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김성화, 2001; 조옥자, 현온강, 2005). 부모와의 상호교류가 부족한 아동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낮아 결국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Huaqing & Kaiser, 2003).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4%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아동기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호감을 얻지 못하는 아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이귀숙, 정현희, 2006; Asher & Wheeler, 1985; Crick & Dodge, 1994).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하게 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1). 이러한 정서가 지속되면 공허감, 무가치함, 불안 및 공포감을 동반하게 되어 결국 비행행동, 학업실패, 청소년 범죄 및 정신 병리적 문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Rubin & Judith, 1987).

2. 동화

1) 동화의 정의 및 특성

동화는 창작되거나 전래되어 온 흥미로운 이야기로써 현실과 환상을 담은 산문 문학이다(강인언, 김영숙, 1992). 동화 속에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이오덕, 1984). 이와 같이 동화는 아동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영하, 1985).

동화의 장르는 저자의 유무에 따라 크게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구분된다. 전래동화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아동에게 적합한 이야기를 골라 재화(再話)한 것을 말한다. 재화(再話)란 이야기의 줄거리는 유지하면서 아동의 언어로 재창조한 것을 의미한다(김세희, 2000). 창작동화는 작가가 의

도적으로 아동을 위해 창작한 동화이다(강문희, 이혜상, 2008). 창작동화는 사실동화와 환상동화로 구분된다. 사실동화는 아동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을 현실적으로 쓴 이야기이다(서정숙, 남규, 2005). 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준다. 반면 환상동화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표현한 동화를 말한다(Galda, Liang, & Cullinan, 2017). 환상동화는 어린이가 보다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한다(Frick, 1986).

주 독자가 아동인 동화는 성인을 위한 문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첫 번째 특성으로 동화는 간결하고 단순하다. 동화가 간결성과 단순성을 지니는 이유는 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운율미 있게 표현하기 때문이다(이재철, 2014). 두 번째로는 의인화를 많이 활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동화에서는 동·식물이나 사물이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한다. 아동은 의인화를 통하여 동·식물과 사물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되어, 작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최경희, 1993).

동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동화가 아동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동화의 가장 큰 가치는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는 것이다. 마쓰이 다다시(1990)는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아동이 동화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기 이후 독서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김세희, 현은자, 1995).

두 번째로 동화는 아동의 문제해결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아동은 동화 속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아동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유강민, 손영수, 2009; 이대균, 백경순, 송정원, 이현정, 2006).

세 번째로 동화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동은 동화 속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감정, 욕구의 충족방법 등을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료화 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감정처리 방법도 학습하게 된다(유강민, 손영수, 2009). 이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바람직한 표현을 하도록 도와준다(이경우 외, 1997; 이춘희, 1998).

네 번째로 동화는 언어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동은 언어기술이 부족하여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유희정, 2002). 아동은 동화 속 다양한 단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물의 개념을 인지하게 된다(박춘식, 1997). 또한 문장 안의 어휘가 가지는 맥락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어휘를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어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이영자 외, 2001; Bromley, 1991/2001).

마지막으로 동화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여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상상력이란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말한다. 아동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화를 접하게 되면 그 상상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된다(김현희, 1997). 이춘희(1998)는 동화는 현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일으키고 끝없는 연상작용을 통해 경이로운 생각을 창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McGee & Richgels, 1996/2000).

이와 같이 동화는 인지, 사회성, 인성, 가치관, 정서 등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화는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다양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아동

이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가 될 수 있다.

2) 동화의 치료적 가치

동화의 치료적 원리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로 나뉜다(김현희, 2004). 동일시(Identification)는 책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감정, 행동 등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선애순, 이형선, 2010). 동화 속 주인공이 기쁨을 경험하는 대목에서 독자도 기뻐하는 것, 또는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만난 엄마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동일시의 결과이다.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내담자의 내면에 쌓여있는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시켜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말한다(Bettelheim, 1976). 동화에서 주인공이 비극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인공의 감정은 아동에게 전달된다. 아동은 내면에 쌓여있는 심리적 문제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시킨다. 이로써 아동은 부정적 감정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쾌감을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정선희, 2004).

통찰(Insight)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정선희, 2004). 아동은 통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된다(유강민, 손영수, 2009; 이대균 외, 2006).

Bernstein(1983)은 동화가 아동에게 치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은 동화 속 인물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둘째, 자아인식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생긴다. 독서는 개인적 활동으로 자아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아동은 자신

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이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이 최소화 된다. 넷째, 아동은 이야기 속에서 문제해결법을 학습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다. 다섯째,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문제를 토론해 볼 용기가 생긴다(Gumaer, 1997/1984, 재인용). 이처럼 동화는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내면화될 수 있으며(Barone, Eeds, & Madson, 1995), 아동 스스로 성찰하여 삶의 가치나 태도 등 삶을 영위해나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선주원, 2013; 최운식, 김기창, 1998).

3.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1) 집단 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는 음악의 치료적 요소와 그룹이 지닌 역동성을 활용하여 내담자를 긍정적 변화로 이끄는 음악치료 형태를 말한다(Pavlicevic, 2003). 집단음악치료에서 그룹은 서로를 지지해주며, 함께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그룹원 간 긍정적 관계형성을 경험하게 된다(정현주, 2013). 음악은 개인보다 그룹의 형태로 진행될 때 더 큰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는데(Gaston, 1986), 이는 음악이 타인과의 교류를 강화시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avis, Gfeller, & Thaut, 1992/2002).

집단 음악치료에서 모방 기법은 치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집단치료 과정에서는 치료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는 그룹원을 모방한다(Barlow, Hansen, Fuhriman, & Finley, 1982). 음악치료에서는 그룹원과 음악을 창작할 때 그룹원이 모델링을 해줌으로써 모방을 하게 된다. 가사를 창작하는 과정은 내담자

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내담자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및 정서적인 작업에 주의를 기울인다(Baker & Wigram, 2005/2008). 이 과정에서 그룹원은 자신과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그룹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Bandura, Blanchard, & Ritter, 1969).

집단 음악치료를 통한 집단 응집력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Yalom과 Leszcz(1975/2019)는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 후에 집단원은 자기를 개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음악치료에서 그룹원과의 악기연주는 타인의 연주를 들으며 맞추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정현주, 2015), 이러한 경험은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도우며 집단 내 역동성을 일으킨다(Boxill, 1985/1988). 이처럼 내담자들은 악기연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화됨에 따라 그룹 응집력이 형성되고 집단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집단치료는 개인치료보다 내담자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창대, 권경인, 2000). Baker와 Wigram,(2005/2008)은 집단 음악치료에서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룹원들은 구성원과 음악을 창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다(Mcferran, 2010/2012; Nathan & Mirviss, 1998/2011). 아동은 이러한 협동 작업을 통해 타인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또래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허혜진, 2010).

이와 같이 집단 음악치료는 그룹원들간의 상호교류가 요구됨에 따라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실현시킨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또래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음악창작에서 동화의 활용

동화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은 동화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이는 동화의 분위기, 등장인물의 감정, 동화로부터 연상된 생각이나 느낌을 활용하여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가사 만들기, 랩 만들기, 노래 만들기(선율), 오스티나토 만들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중재방법이다. 즉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동화를 기반으로 노래나 악기연주를 위한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중심의 치료이다.

동화의 글은 리듬감이 있어 노래가사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음악의 전체적 흐름에는 반복되는 규칙과 리듬이 존재하듯이, 동화에도 반복과 규칙, 리듬이 내제되어 있다(Mandler & Johnson, 1977). 특히 동화 속의 의성어와 의태어에는 박자와 리듬감이 있어서 음악과 연결하기에 적합한 요소이다(현은자 외, 2007). 아동은 이러한 박자와 리듬에 흥미를 보이고, 자신만의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임영심, 1996). 따라서 동화의 언어적인 표현은 기존 곡의 멜로디에 접목시켜 노래가사로 만들기에 유용하다.

아동은 동화를 읽고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가사로 창작할 수 있다. 아동은 동화를 통해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향상되어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된다(윤정진, 정옥분, 2004). 그러므로 아동은 동화로부터 연상된 자신의 생각, 주인공과 동일시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 가사로 창작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는 경험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하며 내재된 생각과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송명희, 오영이, 2013).

동화의 움직임, 분위기, 감정 등은 악기로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동화의 언어적 표현은 음악적 요소인 빠르기(tempo), 쉼여림(dynamics), 음의 높낮이(pitch), 음색(timbre), 강약(accent), 리듬(rhythm), 화음(chord)에 접목시켜 악기연주와 신체로 표현할 수 있다(이숙희, 2010; 백지혜, 2009). 예를 들어 등장

인물이 빠르게 달리는 장면은 16비트로 연주하여 달리는 발소리를 표현하거나, 슬픈 분위기를 표현할 때는 단조화음(minor)을 연주하여 글의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

합주를 위한 음악은 오스티나토(ostinato)를 창작하여 연주할 수 있다. 오스티나토는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리듬, 선율 등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Orff, 1989). 즉 오스티나토는 1마디 또는 2마디 정도의 단순한 동기(motive)를 반복하여 합주의 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화의 의성어, 의태어, 짧은 단어는 오스티나토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깡총깡총’이라는 의태어에 리듬을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소리의 악기를 선택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리듬으로 합주를 위한 음악을 만들게 된다.

3)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는 음악창작,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등을 포함한다.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은 그룹원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노래가사를 만들고, 악기연주를 구성하면서 음악 창작을 위해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 창작에서 가사 만들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사창작은 기존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새로운 가사를 만드는 활동으로 단어와 문장의 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 배경이 없는 대상자도 어려움이나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다(Baker & Wigram, 2005/2008). 아동은 가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현재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 갈등을 음악 안에서 안전하게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정현주, 2015; O'Callaghan, 1997). 또한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그룹원과 토의하는 과정은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Ficken, 1976). 이처럼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은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Davis, Gfeller & Thaut, 1992/2002), 그룹원과 긍정적인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악기연주 활동은 흥미로운 활동으로 참여의 동기를 유발시기 때문에 아동은 내면의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악기 연주를 통해 표현하게 된다(김혜정, 양은아, 2013). 이때 음악은 안정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Montello & Coons, 1998), 아동은 안전한 음악 환경 내에서 자기를 개방하여 내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Cambell & Scott-Kassner, 1995). 그룹 안에서의 연주는 그룹원과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추어 가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김혜정, 양은아, 2013). 이는 타인과의 협력이 요구되며(김관일, 박인수, 2003), 자신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해 연주해야하기 때문에(김영전, 2008), 협동심과 책임감 등 사회 기술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그룹원은 집단 내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한다(정현주, 2011).

노래 부르기는 각 사람이 가진 고유의 악기인 목소리를 사용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가사에 선율을 결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의 감정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써(Baker & Wigram, 2008), 그룹원과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며, 그룹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Austin, 1998). 또한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성취감과 자긍심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성한나, 김영신, 2017; 배성진, 김경숙, 2020).

허혜진(2010)은 음악극을 창작하는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김혜정과 양은아(2013)는 재창조 연주와 즉흥 연주를 포함한 기악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신미경과 정규진과 최애나(2011)는 합주, 합창, 즉흥연주를 사용한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협동 및 자기주장,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쳐 사회성을 향상시켰다고 입증하였다. 이민화(2014)는 노래중심의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나경(2019)역시 목소리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배성진과 김경숙(2020)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극 창작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사회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 안에서의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용인시 소재의 D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중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총 16명(남자 7명, 여자 9명)을 선별한 후, 실험집단 8명(남자 3명, 여자 5명)과 통제집단 8명(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인정된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으로, 지필 검사 및 음악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성별	남자	3	4	7
	여자	5	4	9
학년	1학년	0	2	2
	2학년	4	2	6
	3학년	4	4	8
센터	1년 미만	1	2	3
	1년-2년	5	5	10
다닌 기간	2년-3년	1	1	2
	3년-4년	1	0	1
소득계층	차상위	6	5	11
	기초생활수급	2	3	5

2. 측정 도구

1) 자기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표현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79)가 개발하고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국내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내용적 요소(9문항), 음성적 요소(7문항), 비언어적 요소(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점수는 최하 2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성진과 김경숙(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자기표현 척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번호	주요내용
내용적 요소	1,2,3,4,5,6,7,8,9	말한 내용 자체에 자기표현이 포함된 정도
음성적 요소	10,11,12,13,14,15,16	음성에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 정도
체언적 요소	17,18,19,20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에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 정도

2) 또래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관계 척도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에 의해 개발된 또래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주도성 9문항과 협동·공감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주도성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의 기술이다. 협동·공감 문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래와 물건을 공유하고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말한다. 설문지는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없었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 계수는 .89이다.

<표 III-3> 또래관계 척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주도성	1,3,4,7,10,12,14,15,18	9	.74
협동·공감	2,5,6,8,9,11,13,16,17,19	10	.89
	합계	19	.89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활동의 실시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전·후 검사 통제집단(Pretest-Posttest Control-group Design)’의 설계로 이루어졌다. ‘전·후 검사 통제집단’의 설계는 <표 III-4>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게만 시행하였다.

<표 III-4> 연구 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활동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3
통제집단	O2		O4

X :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활동

O1, O2 : 자기표현, 또래관계 사전검사

O3, O4 : 자기표현, 또래관계 사후검사

4. 연구 절차

1)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및 설문조사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아동센터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비밀 보장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2) 사전검사

자기표현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에 대한 사전검사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2명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3) 사후검사

자기표현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에 대한 사후검사는 동화를 활용한 음악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포되어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프로그램 절차

본 연구는 용인시 소재의 D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주2회 60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연구자가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음악치료의 단계별 활동 구성

프로그램 단계	소요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인사노래
워밍업	5분	즉흥연주
본 활동	45분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마무리	5분	소감 나누기, 마침 노래

프로그램은 각 회기 6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의 시작은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즉흥연주로 워밍업 활동을 하였다. 주 활동에서는 동화를 활용하여 음악창작,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활동을 하였다. 마무리에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정리하며 마침 노래를 부른 후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5.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중재

1)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단계별 목표

본 연구의 활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의 하위영역과 활동 단계별 수준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12회기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에는 효과음 만들기, 즉흥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가사 빈칸 채우기, 가사 창작하기, 랩 만들기, 오스티나토 창작하기, 악기 연주하기가 활용 되었다. 본 연구자가 구성한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의 단계별 활동은 <표 III-6> 과 같다.

<표 III-6>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의 단계별 구성

단계	회기	목표	음악치료 중재
초 기	1	친밀감 형성	효과음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2	친밀감 형성	효과음 만들기, 즉흥 연주하기
	3	자기표현 및 주도성	가사 빈칸 채우기, 노래 부르기
	4		가사 창작하기, 노래 부르기
중 기	5	자기표현 및 협동심 증진	악기 연주하기
	6		랩 만들기
	7		랩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8		오스티나토 창작하여 연주하기
9	10		
마 무 리	11	자기표현 및 타인 공감	가사 창작하기, 노래 부르기
	12		

2)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회기구성

1회기와 2회기는 음악치료를 처음 경험하는 참여자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동화에 효과음을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1회기는 「마음아 작아지지 마」 동화를 사용하였다.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느꼈을 감정에 대해 나눈 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동화에 등장하는 움직임과 상황,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그룹원과 의논하여 효과음을 만들어 표현하였다. 2회기에는 동화 「기분을 말해봐」를 사용하였다. 동화에 등장하는 '외로움', '분노', '걱정', '부끄러움', '신남', '행복' 등의 감정에 대해 자신은 언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 나눈 후, 다양

한 감정을 즉흥연주로 표현하였다. 그 후 각각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음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차례에 연주하는 활동을 하였다.

3회기의 동화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사용하였다. 동화에 등장한 문장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누구에게 언제 듣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나눴다. ‘넌 할 수 있어’ 노래를 사용하여 ‘사랑해’, ‘미안해’, ‘우리 같이할까’ 3가지 버전으로 개사하여 자신의 내면 탐색과 자기표현을 목표로 하였다. 4회기와 5회기에는 「강아지 똥」 동화를 사용하였다. 줄거리, 주인공의 상황, 감정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노래를 개사하였다. ‘코끼리 아저씨’ 노래를 사용하여 「강아지 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사에 포함시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작한 가사로 노래 부르기를 통하여 긍정적 정서를 도모하였다. 5회기에는 4회기 때 완성한 노래에 타악기 연주를 위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룹원과 함께 의논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

6회기부터 8회기까지는 악기 연주를 위한 음악을 만들고, 합주의 경험으로 자기표현과 협동을 목표로 하였다. 6회기는 동화 「의좋은 형제」를 사용하였으며, 동화의 줄거리로 운율과 리듬감을 고려하여 시를 쓰고 리듬을 넣어 랩을 창작하였다. 7회기에는 지난시간에 만든 랩에 반주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타악기를 사용하여 오스티나토 리듬을 만들었으며 A팀은 리듬연주, B팀은 A의 리듬에 맞추어 랩을 하였다. 8회기에는 「청개구리」 동화를 사용하였다. 청개구리의 특징으로 말 리듬을 만들고 신체 리듬을 사용하여 그룹원과 오스티나토 합주를 한 후 악기로 구상하여 연주를 하였다.

9회기는 「똥벼락」 동화를 사용하였다. 동화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단어, 문장, 의성어, 의태어 등을 선택하여 리듬을 만들고, 말소리에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여 오스티나토를 만들었다. ‘똥똥똥’ 노래에 오스티나토 리듬을 연주하

였고, 다시 반복할 때는 노래를 부르며 오스티나토 연주를 하였다. 10회기에는 「도깨비 방망이」 동화를 활용하였다. 동화의 ‘금 나와라 딱딱, 은 나와라 딱딱’ 대사에 리듬과 선율을 3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팀을 나눠 돌림노래를 만들고 노래 부르기를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또래관계 향상을 도모하였다.

11회기는 「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듣고, 친구를 괴롭힌 경험, 또래 사이에서 혼자였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연준의 ‘너에게 줄게’ 노래를 사용하여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가사 만들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12회기는 「너는 특별하단다」 동화를 듣고 남들과는 달라서 속상해하는 주인공에게 위로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룹원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고 편지를 바탕으로 옥상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노래의 후렴구를 개사하였다. 각 회기별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치료적 논거와 각 회기의 사용 노래와 치료적 논거, 사용 동화와 치료적 논거는 다음 표 <표 III-7>, <표 III-8>, <표 III-9>과 같다.

<표 III-7> 각 회기별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회기	하위 목표	중심활동	치료적 논거
1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아 작아지지 마」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동화의 대사(움직임, 의태어, 의성어)에 어울리는 악기 선택하기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화음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기를 사용한 활동은 구성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활동 참여도를 높이며, 이는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자신을 개방하도록 한다. 그룹원과 효과음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그룹원간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동화의 구연에 효과음을 넣어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음악적 관계형성을 돕는다.
2	<p>친밀감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분을 말해봐」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현재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여 즉흥연주하고, 서로가 표현한 기분을 맞추기 • 동화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각 기분에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 방법을 정하여 동화낭독에 맞추어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으로써 그룹원간의 신뢰와 친밀감 형성을 돕는다.
3	<p>자기 표현 및 주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동화에서 소개하는 말 중에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하고 싶은지, 누구한테 듣고 싶은지,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떤지 이야기 나누기. •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등의 문장을 제공하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며 보다 쉽게 가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동화를 활용하여 가사 빈칸을 채우는 활동은 다른 창작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아동의 흥미를 불러오며,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노래의 가사 빈칸 채우기	있도록 한다.
4	자기 표현 및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아지 똥」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동화 줄거리의 상황과 등장인물들이 느꼈을 감정,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토대로 개사하여 노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의 상황과 감정, 분위기 등을 활용하여 개사하는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 개사한 가사로 그룹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도성을 향상시킨다.
5	자기 표현 및 협동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시간에 만든 ‘강아지 똥’ 주제곡에 의성어, 의태어로 추임새 만들기 악기연주를 위한 4가지 리듬을 창작한 후 악기를 정하여 각 구역에 정해진 리듬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원과 상의하여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은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을 유도한다. 그룹원과의 리듬 합주는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추어 가는 협력이 요구되기에 협동심을 향상시킨다.
6	자기 표현 및 협동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좋은 형제」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동화의 줄거리로 운율에 맞추어 시 쓰기 서로의 의견을 의논하여 시에 리듬을 넣어 랩 만들기 구성원과 함께 랩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원과 함께 랩을 부르는 활동은 서로의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p>7 자기표현 및 협동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Dm-G 화성 구조 안에서 지난시간에 만든 랩 부르기 • 그룹원과 리듬패턴 만들고 각자 연주할 악기 정하기 •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A팀은 반주, B팀은 랩을 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서로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상호교류를 하게 되어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p>8 자기표현 및 협동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개구리」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청개구리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 청개구리의 특징 등을 활용하여 말 리듬 만들기 • 신체악기로 그룹원과 리듬 만들어 연주하기 • 신체소리에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여 오스티나토 합주하기 • 말리듬과 함께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소리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활동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 하나의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과 오스티나토 합주는 음악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경험하도록 하여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p>9 자기표현 및 협동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똥벼락」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동화에 나오는 대사와 의태어로 말 리듬 만들기 • 말 리듬과 어울리는 소리의 악기를 선택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과 악기를 구성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 리듬 합주는 그룹원과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p>여 악기로 오스티나토 연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똥똥똥’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오스티나토 리듬 연주하기
10	자기 표현 및 협동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깨비 방망이」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동화에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문장으로 다양한 리듬과 선율 만들기 • 완성된 4개의 짧은 음악으로 2명씩 4팀으로 나누어 돌림노래 하기 • 악기 연주하며 자신의 팀이 맡은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율과 리듬을 만드는 활동은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표현 향상에 도움을 준다. • 그룹원과의 돌림노래는 음악 안에서 관계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자신이 속한 팀과 함께 동일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룹 내 협동심을 향상시킨다.
11	자기 표현 및 타인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동화의 내용처럼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는지,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줬던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동화 줄거리의 내용과 자신이라면 느꼈을 감정 등을 생각하여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를 창작하고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언어적인 가사와 음악적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자기표현을 향상시킨다. •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감정일지 이야기 나누는 활동은 주인공과 동일시되게 하여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래의 후렴부분 가사 만들기	
		• 만든 가사 함께 부르기	
12	자기 표현 및 타인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는 특별하단다」 동화를 듣고 생각 나누기 •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그룹원들의 편지 내용을 종합하여 노래 후렴구 개사하기 • 개사한 노래 함께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자기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가사와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을 공감하게 된다.


<표 III-8> 각 회기별 사용한 노래 및 치료적 논거

회기	사용 노래	치료적 논거
3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되는 리듬과 선율의 구조는 내담자가 쉽게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음악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익숙한 노래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도성을 향상시킨다.
4	코끼리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템포와 장조의 밝은 느낌의 곡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긍정적 정서는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자신을 개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p>똥똥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A형식의 단순한 구조, 반복되는 리듬과 선율은 내담자로 하여금 곡을 예측하도록 하여 내담자가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분할된 리듬과 재미있는 가사는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제공하여 그룹원의 흥미를 이끌어 악기연주에 동기를 부여하며, 구성원과의 악기 연주경험은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11	<p>너에게 줄게 <오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 난 가슴을’,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 ‘아프고 지친 너의 곁으로’ 등의 가사는 동화 속에서 따돌림을 당한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가사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타인을 공감하도록 한다. • J = 75의 템포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며, 서정적인 선율과 반주는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2	<p>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달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소중한 넌’, ‘넌 어디서든 빛이 나는 걸’의 긍정적인 가사는 용기를 주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타인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사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율은 내담자들이 쉽게 가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표현 향상에 도움을 준다.

<표 III-9> 각 회기별 사용 동화 및 치료적 논거

회기	동화명	동화내용	치료적 논거
1	 <p>마음아 작아지지 마</p>	<p>키가 작고, 글씨를 잘 못 쓰고, 달리기도 느린 부바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꽃을 만나면서, 키가 작아서 좋은 점, 느려서 좋은 점 등을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부바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을 나누고 그룹원이 서로의 감정을 찾아주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 상호교류를 경험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2	 <p>기분을 말해봐</p>	<p>소심하게 움츠려 있는 침팬지에게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침팬지는 지루함, 행복, 슬픔, 외로움, 화, 죄책감, 자신만만함, 부끄러움 등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소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에서 소개하는 감정을 통하여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구성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맞추는 활동은 그룹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p>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p>	<p>'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등 세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말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깨닫게 해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넌 할 수 있어' 등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하여 자신은 누구에게 이 말을 듣고 싶으며, 하고 싶은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한지에 대

			<p>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자기표현을 향상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에게 동화의 활용은 보다 쉽게 자신을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성을 향상시킨다.
4	 <p>강아지 똥</p>	<p>돌담길에 버려진 강아지 똥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러나 강아지 똥은 흙덩이를 만나면서 쓸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이 쓸모 있게 되기를 원한다. 강아지 똥은 어느 날 민들레 새싹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강아지 똥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일지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아지 똥이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담자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동화의 줄거리에서 강아지 똥과 민들레 새싹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장면은 실제로 내담자가 노래를 부르는 활동으로
5			

			연결시킬 수 있어 그룹원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도모하며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6	 <p>의좋은 형제</p>	부유한 형과 가난한 동생이 등장한다. 어머니는 형 몰래 동생에게 나락을 더 넣어 주자, 동생의 부인은 다시 형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수는 감동을 받아 형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논 백 마지기를 동생에게 주었다.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의 내용처럼 친구와 서로 고마웠을 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표현을 유도한다. • 형과 아우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기술을 배우게 되며, 협동심을 증진된다.
7			
8	 <p>청개구리</p>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근심이 컸던 엄마는 결국 병에 걸린다. 엄마는 죽으면 산에 묻히길 원했지만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냇가에 묻어달라고 한다. 청개구리는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며 엄마의 유언을 지켜 냇가에 묻어 준다.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되어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개구리의 반대로 하는 행동으로 엄마를 잃게 되는 장면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기표현 방법을 습득한다. • 청개구리처럼 타인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지지하고 수용하는 경험은 그룹원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9	 <p>똥벼락</p>	<p>돌쇠 아버지는 돌밭에 거름을 만들기 위해 똥을 모은다. 우연히 만난 도깨비는 돌쇠 아버지 사정이 딱하여 똥을 주어 돌쇠 아버지를 도와준다. 돌쇠 아버지를 괴롭히던 김부자에게도 똥을 가득 주어서, 욕심을 부린 김부자는 벌을 받고, 성실하고 착하게 산 돌쇠 아버지는 복을 받은 이야기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돌쇠아버지를 통하여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 • 도깨비가 돌쇠아버지를 도와주는 장면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10	 <p>도깨비 방망이</p>	<p>호심이 지극한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주운 은행열매를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비를 피해 낡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도깨비 소굴이었다. 총각이 은행열매를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간다.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 부자가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도 똑같이 따라 했지만 도깨비들이 속지 않고 그 친구를 혼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나무꾼과 욕심 부리는 나무꾼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자기표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착한 나무꾼이 자신이 주운 은행열매를 가족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장면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도와 협동심 증진에 도움을 준다.

11	 <p>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p>	<p>꼬리잡기 놀이를 하던 무지개 물고기의 무리는 즐무늬 물고기가 같이 놀자고 했지만 끼워주지 않는다. 갑작스런 상어의 등장으로 무지개 물고기들은 도망쳤지만 즐무늬 물고기는 도망치지 못하였고, 무지개 물고기는 즐무늬 물고기가 걱정되어 즐무늬 물고기를 구해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물고기, 즐무늬 물고기의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 친구가 많은 무지개 물고기와 혼자 노는 즐무늬 물고기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는 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12	 <p>너는 특별하단다</p>	<p>편치넬로는 별표를 한 장도 받지 못하고 점표만은 몸에 붙이고 있는 나무 사람이다. 스스로를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치넬로에게 엘리 아저씨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너는 내가 만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무 사람에게 놀림을 받아 속상해하는 편치넬로와 편치넬로에게 점표를 붙이는 나무 사람들, 또 편치넬로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통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인을 공감하게 된다. • 편치넬로를 놀리는 나무사람들과 편치넬로에게 용기를 주는 엘리 아저씨의 표현을 통하여 올바른 자기표현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성별, 학년, 센터 다닌 기간, 소득계층에 대한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사전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으며, 그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차이에 대한 전체적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그래프를 제시하였고, 집단별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두 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학년, 센터 다닌 기간, 소득계층에 대한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전체	%	χ^2	p
성별	남자	3	4	7	43.80	.254	1.000
	여자	5	4	9	56.90		
학년	1학년	0	2	2	12.50	2.317	.347
	2학년	4	2	6	37.50		
	3학년	4	4	8	50.00		
센터 다닌 기간	1년 미만	1	2	3	18.80	1.606	1.000
	1년-2년	5	5	10	62.50		
	2년-3년	1	1	2	12.50		
	3년-4년	1	0	1	6.30		
소득계층	차상위	6	5	11	68.8	.291	1.000
	기초생활수급	2	3	5	31.3	31.3	

* $p < .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표현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 그리고 각 척도의 하위 요인 사전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기표현 척도와 자기표현 하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5$), 또래관계 척도와 또래관계 하위요인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구 분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Z	p
	M	SD	M	SD		
자기표현	64.25	8.00	53.25	13.00	-1.58	.114
내용적 요소	28.38	3.58	24.38	5.40	-1.37	.170
음성적 요소	15.38	3.34	12.50	4.31	-1.48	.138
체언적 요소	20.50	3.59	16.38	4.37	-1.75	.080
또래관계	45.75	10.65	47.25	10.77	-.21	.833
주도성	19.38	4.10	20.25	5.34	-.11	.916
협동·공감	26.38	8.05	27.00	6.12	-.16	.875

* $p < .05$

3. 자기표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자기표현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표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자기표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U	Z	p
	M	SD	M	SD			
자기표현	-21.88	5.87	-1.13	1.13	.00	-3.3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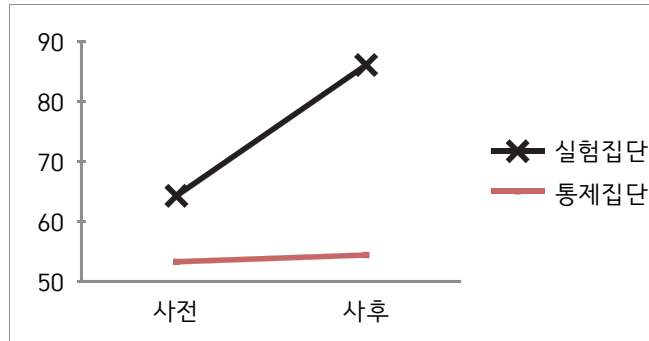
** $p < .01$

자기표현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4>, <그림 IV-1>과 같다.

<표 IV-4> 자기표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자기표현	실험집단	64.25	8.00	86.13	2.80	-2.54	.011*
	통제집단	53.25	13.00	54.38	13.54	-2.04	.041*

* $p < .05$



<그림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평균점수 변화

실험집단의 경우 자기표현의 전체 평균점수가 사후검사 86.13(SD =2.80) 점 으로 사전검사 64.25(SD =8.00)점에 비해 21.8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54.38(SD =13.54)점은 사전검사 53.25(SD =13.00)에 비해 1.13점 증가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뿐 아니라 통제집단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Z = -2.04, p = .041$),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점수가 증가했다($Z = -2.54, p = .011$).

2) 자기표현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 후 자기표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표 IV-5>와 같이 내용적 요소($p < .01$), 음성적 요소($p < .01$), 체언적 요소($p < .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5> 하위영역의 변화량 대한 Mann-Whitney U 검증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p
	M	SD	M	SD			
내용적 요소	-10.38	4.24	-.37	.52	.00	-3.42	.001**
자기표현 음성적 요소	-7.62	2.26	-.38	.52	.00	-3.42	.001**
체언적 요소	-3.88	2.03	-.37	.74	2.50	-3.2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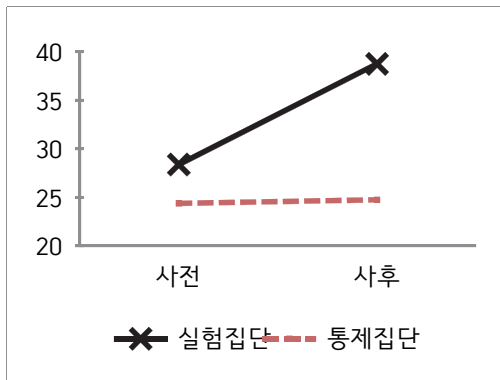
** $p <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6>,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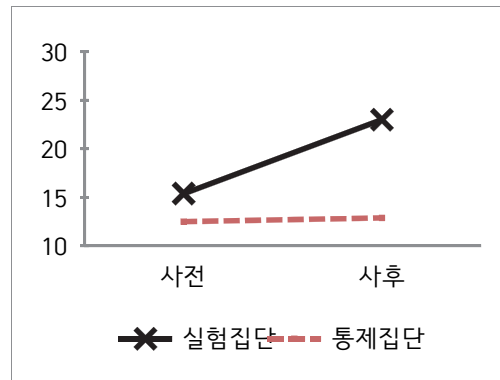
<표 IV-6>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하위영역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내용적 요소	실험	28.38	3.58	38.75	1.67	-2.52	.012*
	통제	24.38	5.40	24.75	5.44	-1.73	.083
음성적 요소	실험	15.38	3.34	23.00	1.85	-2.52	.012*
	통제	12.50	.431	12.88	4.64	-1.73	.083
체언적 요소	실험	20.50	3.59	24.38	3.11	-2.54	.011*
	통제	16.38	4.53	16.75	4.53	-1.34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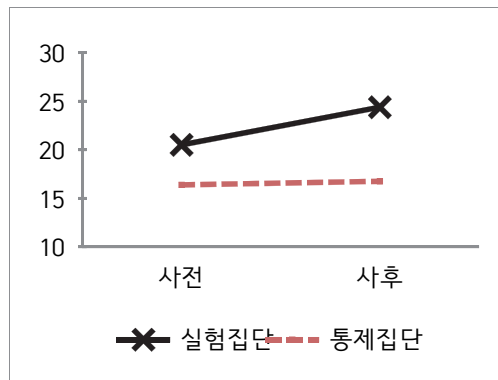
* $p < .05$



<그림 IV-2> 내용적 요소



<그림 IV-3> 음성적 요소



<그림 IV-4> 체언적 요소

내용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38.75(SD =1.67)점으로 사전검사 28.38(SD =3.58)점에 비해 10.3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24.75(SD =5.44)점으로 사전검사 24.38(SD =5.40)점에 비해 .37점 증가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Z = -2.5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1.73, p > .05$).

음성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23.00(SD =1.85)점으로 사전검사 15.38(SD =3.34)점에 비해 7.62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

후검사 12.88(SD =4.64)점으로 사전검사 12.50(SD =4.31)점에 비해 .38점 증가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2.5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73, p > .05$).

체언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24.38(SD =3.11)점으로 사전검사 20.50(SD =3.59)점에 비해 3.8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6.75(SD =4.53)점으로 사전검사 16.38(SD =4.53)점에 비해 .37점 증가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2.54,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34, p > .05$).

4. 또래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또래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 후 또래관계 점수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또래관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실험집단(<i>n</i> =8)		통제집단(<i>n</i> =8)		<i>U</i>	<i>Z</i>	<i>p</i>
	M	SD	M	SD			
또래관계	-25.50	8.94	9.13	4.45	.00	-3.37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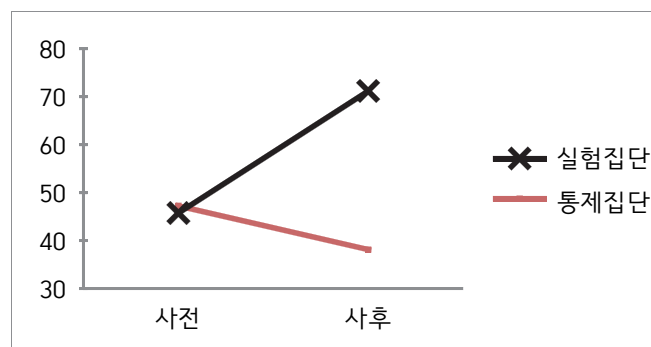
***p*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 <그림 IV-5>와 같다.

<표 IV-8>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집단	사전		사후		<i>Z</i>	<i>p</i>
	M	SD	M	SD		
실험집단	45.75	10.65	71.25	1.98	-2.52	.012*
통제집단	47.25	10.77	38.13	7.77	-2.52	.012*

**p* <.05



<그림 IV-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평균점수 변화

실험집단의 경우 또래관계 전체 평균점수가 사후검사 71.25(SD =1.98)점으로 사전검사 45.75(SD =10.65)점에 비해 25.5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38.13(SD =7.77)점으로 사전검사 47.25(SD =10.77)점에 비해 9.13점 감소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고($Z = -2.52, p < .05$),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감소하였다($Z = -2.52, p < .05$).

2)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 후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표 IV-8>와 같이 주도성($p < .01$), 협동·공감($p < .01$), 2개의 하위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8> 하위영역의 변화량 대한 Mann-Whitney U 검증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p
		M	SD	M	SD			
또래관계	주도성	-13.50	3.38	2.75	3.45	.00	-3.38	.001**
	협동·공감	-12.00	6.93	6.37	2.92	.00	-3.37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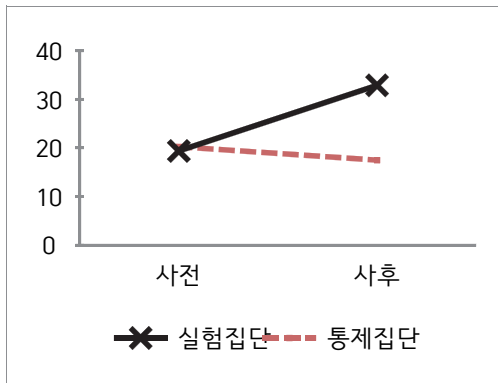
** $p <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관계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 <그림 IV-6>, <그림 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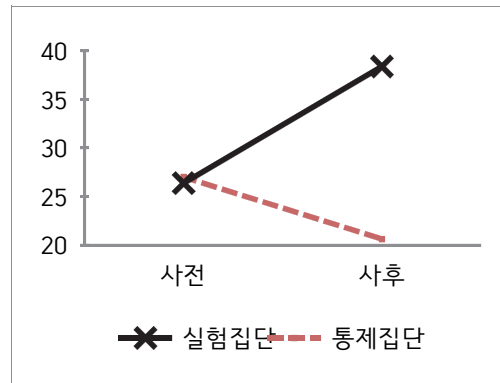
<표 IV-9> 또래관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증

하위영역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주도성	실험	19.38	4.10	32.88	1.13	-2.54	.011*
	통제	20.25	5.34	17.50	4.31	-2.12	.034*
협동·공감	실험	26.38	8.05	38.38	1.30	-2.52	.012*
	통제	27.00	6.12	20.63	4.10	-2.52	.012*

* $p < .05$



<그림 IV-6> 주도성



<그림 IV-7> 협동·공감

주도성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32.88(SD =1.13)점으로 사전검사 19.38(SD =4.10)점에 비해 13.5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7.50(SD =4.31)점으로 사전검사 20.25(SD =5.34)점에 비해 2.75점 감소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이 증가했으나($Z = -2.54,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이 감소하였다($Z = -2.12, p < .05$).

협동·공감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38.38(SD =1.30)점으로 사전검사 26.38(SD =8.05)점에 비해 12.0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

검사 20.63(SD =4.10)점으로 사전검사 27.00(SD =6.12)점에 비해 6.37점 감소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Z = -2.5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이 감소하였다($Z = -2.52, p < .05$).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다.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표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p < .05$).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 초기에 집단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래들과 눈 마주침을 하지 못하던 아동들도 회기가 지날수록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그룹원과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결과물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은 매회기 워밍업 단계에서 자신의 내면을 악기로 표현하는 즉흥연주를 하였다. 음악 안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음악에 자신의 내면을 담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즉흥연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기표현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음악극을 창작하는 활동이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배성진, 김경숙, 2020; 성한나, 김영신, 2017), 악기연주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연구결과(Aigen, 2009)를 지지한다.

자기표현의 사전·사후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전체점수는 64.25점에서 86.13점으로 21.8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전체점수는 53.25점에서 54.38점으로 1.13점 증가하여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그러나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 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에서도 내용적, 음성적, 체언적 요소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변화량에 대한 비교에서도 실험집단의 변화량이 통제집단의 변화량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나타냈기에 음악치료 증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p < .05$).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또래관계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동은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 향상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서로 다른 악기와 리듬으로 연주하는 활동은 그룹원 한명 한명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음악 안에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는 상호교류는 그룹 응집력 강화와 협동심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는 노래 만들기가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기술을 향상시킨다는 Ficken(1976)의 주장과, 합주가 구성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김선하(200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동화를 사용할 때 동화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일치하면 더 큰 치료효과가 나타난다(문경여, 한유진, 200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의 즐거리를 다룬 동화를 선별하여, 타인과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음악 활동을 시행하였다. 아동은 동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생각,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간접 경험을 하였는데, 이를 음악활동 과정에 적용시켜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동화와 음악의 융합이 또래관계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성과 관련된 동화를 사용한 활동이 아동의 또래유능성과(이화원, 손은령, 2019) 친사회성에(신애선, 2018)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음악치료에 동화를 접목한 활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에 유용한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또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음악치료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구상하고 연주하였다. 이는 아동이 악기를 탐색하면서 다양한 연주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화의 효과음이나 동물소리 등을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전

자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주한다면 더욱 생동감 있게 동화의 소리를 묘사하여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보다 독창적인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음악치료 연구가 시도되기를 제안한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매 회기마다 창작된 결과물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진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였으나, 예정된 발표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취소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이혜상 (2008). **아동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강인언 · 김영숙 (1992). **유아문학개론**. 경기: 양서원.
- 강한나 ·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613-622.
- 공창숙 (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구광현 · 이희경 (2002).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 멋진 부모, 멋진 자녀, 이런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서울: 교육과학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아동복지법 시행령**.
- 김경희 ·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6.
- 김관일 · 박인수 (2003). 기약합주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초등특수교육연구**, 5(1), 29-60.
- 김동일 · 김신호 · 이근재 · 정일호 · 정종진 (2004). **아동발달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 김미숙 (2006). 놀이 중심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표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5(1), 185-204.
- 김미지 (2018). 동화를 활용한 무용동작치료가 정서·행동 문제 아동의 불안 감소와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2(1), 57-77.
- 김서안 · 권영란 (2016).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3(2), 555-583.

- 김선숙·박호준 (2019). 빈곤, 가족구조와 아동 삶의 질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0(2), 155-178.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0), 40-59.
- 김성화 (2001). 사례 1: 아동학대 사례 ;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방임에 관한 사례 개입 연구. **사회복지관 사례연구**, 15, 3-40.
- 김성희 (1982).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효과. **학생지도연구**, 15(2), 1-30.
- 김세희 (2000). **유아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 김세희·현은자 (1995).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 서울: 양서원.
- 김수희 (2009).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33-53.
- 김승주, 김승희 (2020).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2), 235-260.
- 김시연·장진경 (2001). 공격성 감소와 자기표현증진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검증-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3(1), 141-157.
- 김영은 (2016). **초등 고학년 위축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전 (2008). **오르프 악기 편성법**. 서울: 음악세계.
- 김영하 (1985). **유치원 동화의 가치주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윤태·서재욱 (2013). **빈곤 : 어떻게 싸울 것인가**. 파주: 한울.
- 김은아·김정남 (2011). 놀이중심 자기표현 훈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불안과

-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8(2), 275-287.
- 김정열 (2012).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의 이해수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신규진입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창대·권경인 (2000). 집단상담 활동의 유형화 연구-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 53-73.
- 김현희 (1997). 아동문학 읽기의 새로운 현상과 접근. **독서연구**, 2, 135-180.
- 김현희 (2004).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혜정·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마쓰이 다다시 (2008). **어린이와 그림책의 세계**. (이상금 역) 서울: 한림출판사.
- 문경여 (2005).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동화 선정 및 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문경여·한유진 (2008).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동화 선정 및 프로그램 효과. **놀이치료연구**, 12(2), 117-136.
- 박세라 (2010).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시은·박지연 (2015). 놀이활용 자기표현훈련이 위축된 지적장애학생과 통합학급 또래들의 정서적 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3), 65-85.
- 박진희 (2013). **아동의 일상적 활동에 근거한 주거단지 외부 공간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춘식 (1997).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방은미 (2016).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

- 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성진·김경숙(2020).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51-70.
- 백수정·강경선(2016).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87-108.
- 백지혜 (2009). 그림책을 이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3(5), 189-212.
- 변창진·김성희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51-85.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2019).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생활환경 인식조사**.
- 서정숙·남규(2005).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 서재욱 (2018). **주관적 빈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국가의 빈곤 완화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혜전 (2012). 방과 후 방치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0(3), 24-41.
- 선애순·이형선 (2010). **아동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 선영운 (2015).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선주원 (201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아동문학교육론**. 서울: 박이정.
- 성영혜·김광웅·이재연·서영숙·이소희 (2001). **아동심리학**. 서울: 숙명여자

대학교출판부.

- 성한나·김영신 (2017).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311-334.
- 송명희·오영이 (2013). 시쓰기를 통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어문교육**, 28, 121-154.
- 송소원 (2008). 자기표현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6(1), 103-117.
- 송영화·최준섭 (2018). 심리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또래 관계 프로그램 개발: 어울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초등상담연구**, 17(4), 537-557.
- 송유진 (2009). 전통놀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79-102
- 송효현·정다우리 (2014). 이혼 해체 부-자녀 가정과 양부모가정 간 아버지역할수행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기조절의 차이.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35-58.
- 신미경·정규진·최애나 (2011).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221-237.
- 신애선 (2018). 사회성 동화를 활용한 극놀이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59-380.
- 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지현 (2008). 저소득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 변인의 중재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혜숙·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안명옥 (2018). **만 5세반 유아의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양미진 · 김은영 · 이상희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초등교육연구*, 22(2), 205-232.
- 양예슬 · 문소영 (2015).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7(1), 103-120.
- 양윤란 ·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4(4), 961-971.
- 여유진 (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25-39.
- 오숙현 (2005). 자기표현 활동이 유아의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65-183.
- 우수경 · 정영숙(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99-115.
- 우진경 (2016). **자기표현 중심 아동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강민 · 손영수 (2009). 매체동화가 특수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189-211.
- 유희정 (2002). **동화를 활용한 갈등해결 교수전략이 3세 유아의 또래 간 갈등 양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정진 · 정옥분 (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21-40.
- 이경림 (2009).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서울: 보건복지부·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 이경우 · 장영희 · 이차숙 · 노영희 · 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서울: 양서원.

- 이귀숙·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유능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가 학령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575-593.
- 이대균·백경순·송정원·이현정 (2006). **유아문학교육**. 서울: 공동체.
- 이민화 (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선애·김현주 (2006).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보육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2), 43-67.
- 이성휘·박정윤·김양희·장영은·어성연 (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305-316.
- 이수연 (2006).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교육 활동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1), 29-62.
- 이숙희 (2010). **아동음악과 동작**. 서울: 동문사.
- 이아영·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 (KYPS) 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영자·유효순·이정옥 (2001).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 이오덕 (1984).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서울: 백산서당.
- 이윤경 (2016). **사회 경제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혜·김정윤·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재철 (2014). **아동문학의 이해**. 서울: 국학자료원.
- 이정숙·전숙영(2001). 아동의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 학회**, 19(5), 15-32.
- 이춘희 (1998). 동화제시 및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동화구조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5, 55-77.
- 이화원·손은령 (2019). 동화를 활용한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27-50.
- 임선희·원상화 (2011). 인지행동통합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7(3), 63-84.
- 임영심 (1996). 유아의 동화 표상활동에 대한 지도방안 모색. **유아교육연구**, 16(2), 27-47.
- 임윤영 (2013).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진솔, 공마리아 (2019). 동화활용 집단미술치료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학회** 26(5), 831-852.
- 장선미 (2020).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29(2), 188-194.
- 장휘숙 (2001). **인간발달**. 서울: 전영사.
- 정규석·박선희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사회과학연구**, 26(1), 433-452.
- 정문자·여종일 (2009).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변인. **아동학회지**, 30(3), 71-83.
- 정선희 (2004). 이주홍 동화의 독서치료적 조망-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적용. **독서치료연구**, 1(1), 77-98.
- 정여주 (2015). **어린왕자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정애 · 민주희 · 이성희 · 최승숙 · 김지현 (2019).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효의식의 매개효과. **효학연구**, 29(29), 83-119.
- 정현주 · 김동민 (2005).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옥자 · 현은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8).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20). **202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료**.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팀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조사 개요**.
- 진수영 · 민천식 (2008). 통합교육 상황에서 놀이중심 자기표현 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통합교육연구**, 3(2), 75-106.
- 채영란 · 지성애 (2010). 동화를 활용한 토의, 미술 활동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3), 317-336.
- 최경희 (1993). **동화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명심 (2000). **주장성 훈련이 아동의 대인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운식 · 김기창 (199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최은주 · 김춘경 (2011).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을 강화하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 · 행동장애연구*, 27(2), 209-234.
- 최혜선 · 박성연 (2008).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 15-24.
- 한숙종 · 방명애 · 권보미 (2018).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위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연구*, 34(1), 177-196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37-59.
- 현은자 · 강은진 · 변윤희 · 심향분 · 최경 · 나선희 · 윤아해 · 오정옥 · 강은애 · 육길나 (2007). *그림책과 예술교육*. 서울: 학지사.
- Adler, R. B (2015).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김인자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서출판, 1977).
- Aigen, K. (2009). Verticality and containment in song and improvisation: An applicaion of schema theory to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6(3), 238-267.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Austin, D. (1998). *When the Psyche Sings: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Improvised Singing with Individual Adults*. NH: Barcelona Publishers.
- Baker, F., Wigram, T.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의 임상 및 교육을 위한 지침서*. (최미환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5).

- Bandura, A., Blanchard, E. B., & Ritter, B. (1969). Relative efficacy of desensitization and modeling approaches for inducing behavioral, affective, and attitudinal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3), 173-199.
- Bartel, L. R. & Cameron, L. M. (1998). "Creative synergy : Story and music" in B. Roberts(ed). *Connect, combine, communicate: Revitalizing the arts in canadian schools*. The University College of Cape Breton Press.
- Barlow, S., Hansen, W. D., Fuhriman, A. J., & Finley, R. (1982). Leader communication style: Effects on Members of Small Groups. *Small Group Behavior, 13*(4), 518-531.
- Barone, T., Eeds, M., Mason, K. (1995). Literature, the disciplines, and the liv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Language Arts, 72*(1), 30-38.
- Bettelheim, B. (1976).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Knopf : distributed by Random House.
- Bernstein, J. (1983). *Books to Help Children Cope with Separation and Loss*. New York : R. R. Bowker.
- Borczon, K. E. (2004). **집단음악치료 : 실제 집단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실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7).
- Boxill, E. H. (1988).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김태련, 엄현경, 정현지, 김현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서출판, 1985).
- Bromley, K. D. (2001). **아동문학교육**. (이현섭 역). 서울: 양서원. (원서출판, 1991).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89).

- Calogero, J. M. (2002). Intergrating Music and Children's Literature. *Music Educators Journal*, 88(5), 23-30.
- Campbell, P. S., & Scott-Kassner, C. (1995). *Music in Childhood: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New York : Schirmer Books.
- Carter, R. T. (2002). Back to the Future in Cultural Competence Trai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6), 787-789.
- Chen, X., Huang, X., Wang, L., & Chang, L. (2012). Aggression,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Chinese children: a multi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12), 1233-1241.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Galda, L., Liang, L. A., & Cullinan, B. E. (2017). *Literature and the Child*. Boston : MA Cengage Learning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2). 음악치료학 개론. (김수지, 고일주,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서출판, 1992).
- Ficken, T. (1976). The use of songwriting in a psychiatric setting. *Journal of Music Therapy*, 13(4), 163-172.
- Frick, H. A. (1986). The value of sharing stories orally with middle grade students. *Journal of Reading*, 29(4), 300-303.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 Macmillan.
- George, R. L., & Dustin, E. R. (1988). *Group counseling: theory and*

- practice*. New Jersey : Prentice Hall.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6), 393-400.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Springer-Verlag Publishing.
- Gumaer, J. (1997) **아동상담과 치료**. (이재연. 서영숙. 이명조 역). 서울: 양서원. (원서출판, 1984).
- Huaqing Q, C.,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 Hartup, W. W., & Moore, S.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1-18.
- Higgins, G. (2003). **(예술 심리치료) 임상 사례연구 방법론**. (김진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3).
- Hoge, D. R., & McCarthy, J. D. (1984). Influence of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salience in the global self-esteem of you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403-414.
- Lazarus, A. A. (1966). On Assertive Behavior: A brief note. *Behavior Therapy*, 4(5), 697- 699.
- Mandler, J. M., & Jhonson, N. S. (1977). Remembrance of things parsed: Story structure and recall. *Cognitive Psychology*, 9(1), 111-151.
- Mcferran, K.(2012). **청소년 음악치료: 임상 및 교육을 위한 방법**. (최미환, 홍인실, 장은아 역). 서울: KMTACA. (원서출판 2010).
- McGee, L. M., Richgels, D. J. (2000). **영유아의 문해발달 및 교육**. (김명순,

- 신유림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6).
- Montello, L., & Coons, E. E. (1998). Effects of active versus passive group music therapy on preadolescents with emotional, learning,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35(1), 49-67
- Nathan, A. A., & Mirviss, S. (2011). **창조적 예술치료기법**. (박희석, 류정미, 윤명희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O'Callaghan, C. C. (1997). Therapeutic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the music when using song writing in palliative ca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5(1), 32-38.
- Orff, C. (2006). **칼 오르프·슐베르크**. (김영진 역). 서울: 음악세계(원서출판, 1978).
- Pavlicevic, M. (2000). Improvisation in music therapy: Human communication in sound. *Journal of music therapy*, 37(4), 269-285.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akos, R. F., & Schroeder, H. E. (1979). Development and empirical evaluation of a self-administered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5), 991-993.
- Rubin J. A., & Judith. A. (1987). *Approaches To art Therapy. : Theory and Technique*. Philadelphia : Paterson Marsh Ltd.
- Shaffer, D. R. (2008). **사회적 성격발달**. (송길연, 이지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1979).
- Thaut, M., & Hoemberg, V. (2014). *Handbook of Neurologic Music Therap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P, H., & Harris, M, B. (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1), 105-112.

Wolpe, J. (1973).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2nd, ed). Oxford:
Pergamon.

Yalom, I. D., & Leszcz, M. (2019). **집단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립,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 학사. (원서출판, 1975).

ABSTRACT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Using Fairy Tales on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Hong, Jung-A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using fairy tales on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from D community child center in Y city, Gyeonggi-do. Out of 16 participants, 8 were selected and randomly assign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other 8 into a control group.

Music therapy session using fairy tales was conducted twice a week, 60 minutes each, 12 sessions in total.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 self-expression test and a peer relationship test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SPSS 20.0 program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of the two tests: The Mann-Whitney U test and the Wilcoxon Matched Pair test.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nd increas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regarding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 and also the experimental group's post scores on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to the prior score. We suggest that music therapy programs using fairy tales can be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self-expression and peer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부 록

[부록-1]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2] 자기표현 검사

[부록-3] 또래관계 검사

[부록-4] 음악 창작 악보

[부록-1] 일반적 특성 설문지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시를 하거나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	성별 남 / 여	학년
생년월일	년	월 일
1. 몇 살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나요?		
2.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모두 작성해주세요.		
3. 음악교육, 피아노, 오케스트라 활동 등 음악활동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음악활동을 했나요?		
4. 음악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5. 음악치료 외에 다른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치료를 받았나요?		

[부록-2] 자기표현 검사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면 됩니다.

▶ 단어의 뜻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세요.

번호	항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화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나의 생각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에게 사과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말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그렇다고 우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할 때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친한 사람과 말할 때 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친한 사람과 말할 때 내 생각을 끝까지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중얼거리는 것은 아지만, 상대가 알아 듣기 어려울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딱 잘라서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말할 때 입안에서만 중얼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말의 높낮이가 어색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말하는 중간에 ‘에’, ‘음’ 등의 말 때문에 말이 잘 끊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말하기 전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말할 때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말할 때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표정이 바르지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말하는 도중 손을 비비거나 발을 움직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말할 때 몸이 굳어져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3] 또래관계 검사

번호	항 목	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아이에게 빌린 물건을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먼저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6	조별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작업(공부, 숙제 등) 을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7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 하자” 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8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실수를 한 경우에는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10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 놀이에 끼워달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1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2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경우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다.	①	②	③	④
14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나를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15	친구에게 숙제를 함께 하자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이에게 내 물건을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게임에서 졌더라도 이긴 친구에게 게임을 잘한다고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에게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고 같이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부록 4-1] 3회기 가사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G Em C D

정 말 고 마 워 라 고 말 해 주 세 요
미 를 안 해 라 고 - 말 해 주 세 요

5 G Em C D G

그 럼 나 의 마 음 은 부 듯 해 저 요
그 럼 나 의 마 음 은 가 버 워 저 요
그 럼 나 의 마 음 은 두 근 거 려 요

9 C G/B Am D

정 말 정 말 땡 큐 땡 큐 아 갓 지 않 아 요
쏘 리 쏘 리 미 안 미 안 친 구 야 미 안 해 요
콩 닥 콩 닥 두 근 두 근 얼 굴 이 빨 개 저 요

13 C G/B A D

귀 찰 다 는 생 각 이 싹 달 아 나 요 힘 이 센 말 고 마 워
자 - 꾸 자 꾸 하 는 마 음 이 조 금 은 가 버 워 저 요
말 하 고 싶 어 요 힘 이 센 가 말 사 랑 해

17 G Em C D

정 말 고 마 워 라 고 말 해 주 세 요
미 를 안 해 라 고 - 말 해 주 세 요

21 G Em C D G

그 럼 나 의 마 - 음 은 흐 못 해 저 요
그 럼 나 의 마 - 음 은 가 버 워 저 요
그 럼 나 의 마 - 음 은 두 근 거 려 요

25 Am D G

정 말 고 마 워
정 말 미 안
너 를 사 랑 해

[부록 4-2] 4회기 가사 만들기

강아지 똥

G C G

둥 이 네 힌 둥 이 골 목 길 담 구 석 에 서

5 G D7

똥 을 싸 서 강 아 지 똥 만 들 어 졌 죠 (뿌지직 뽕 뽕 뿌지직 뽕 뽕)

9 G C G

흙 덩 이 참 새 어 미 닭 과 병 아 리 가

13 G D7 G

강 아 지 똥 보 고 더럽 다 고 놀 려 댔 어 요 저 리 가 냄새 나 못 생 겼 어

17 C G

서 럽 고 속 상 하 고 화 도 나 고 짜 쫄 나 서

21 D7

엉 엉 울 었 어 요 (강 아 지 똥 을 지 마 라 괜 찮 니 괜 찮 니)

25 G C G

봄 비 가 내 린 후 민 들 레 새 싹 만 났 죠

29 G D7 G

거 름 이 되 어 서 민 들 레 꽃 피 어 났 어 요